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희생자 1주기 추모예배 

살아남아, 다시 불인다

2017.5.11(목) 7:30pm
강남역 10번 출구



사진 ©김예지

공동주최 | 믿는페미 잇는예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협찬 |  TOTAL PARTY SOLUTIONS

살아남아, 다시 붙인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희생자 1주기 추모예배

인도 더께더께(민는페미) 반주 이종혁(기타/청파교회), 류아 프란체스카(건반/나무공동체)

타종과 함께 침묵기도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인도자

八福

윤동주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저히가 永遠히 슬플것이오.

찬 송

다함께

입례송

Em7 Asus4 Dadd9 Em7 Asus4 Dadd9

이제 우리여기이렇게 모여있으니 주여 우리가운데로어서오소서절망
서로 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로 통해 주여 당신이함께하심을느끼니이제

우 리 여 기 모 여 있 으 니 우 리 가 운 데 로 오 소 서 절 망
손 길 과 웃 음 과 위 로 를 당 신 이 함 께 하 심 을 느 끼 니 이 제

G Asus4 A F#m7 B7 Em7 Em7/A Dadd9 D

과 고통 속 에 있던 우리 상 처 입 은 영 혼 이 시간 당 신 께 다 내 려 놓 겠 습 니 다
우 리 어 디 있 든 지 무슨 일 을 당 하 든 지 더는 혼 자 가 아 님 을 깨 달 게 하 소 서

과 고통 속 에 있던 우리 상 처 입 은 영 혼 당 신 께 내 려 놓 겠 습 니 다
우 리 어 디 있 든 지 무슨 일 을 당 하 든 지 함 께 함 을 깨 달 게 하 소 서

© 2013<산맥>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현장의 기도

오스칼네 고양이(민는페미)

애통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태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억압받고, 죽음당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곳이 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이고, 내가 두렵기 때문이며, 한편 그 수많은 피흘림을 보면서 마치 남 일인것처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시대와 장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 이 곳에서,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내가 걸었던 길을 걸었을 한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죽음을 나의 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여자라는 이유로 죽음으로 내몰린, 생명을 강탈당한 이들이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애통해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아파야 마땅합니다.

나는 당신께 고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나는 마녀라고 불렸습니다. 마른 가지를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성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는 불에 태워졌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결혼 계약 전에 아이를 가졌거나, 남편이나 아버지와 싸웠거나, 내 직업을 갖고자 했거나,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했거나, 사회를 떠나 혼자 살고자 했거나, 동물과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니까, 아담을

죄짓게 한 이브의 후손이라는 교회의 말에 힘입어, 세상을 어둡게 하는 마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죄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에 탈 때 내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회중 : 하나님, 마녀사냥으로 죽임당한 이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나는 가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몸을 가리지 않아서,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고자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면서 내가 '명예'를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인 나에게는 내 몸에 대한 권리조차 없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내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성은 성욕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나의 생식기가 잘리워졌고, 그렇게 나와 내 벗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회중 : 하나님, 명예살해와 여성할례로 인해 죽임당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는 전쟁 중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남성의 성욕을 채워 전력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강간당하고 죽임 당했습니다. 내가 여성인 이상, 나는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본군 성노예이며, 한국 군인들에게 강간당하고 죽임당한 베트남 여성이자, 기지촌에서 일하다가 어느 미군에게 살해당하고 생식기에 우산이 꽂힌 채로 발견된 '윤금이'입니다.

회중 : 하나님, 이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멕시코 연쇄살인 사건의 400 여명 피해자 중 한 사람이며,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죽은 10명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날 나는 친구를 만났고, 화장실에 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2017년 5월11일. 이곳에 있는 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여성이기에 이것은 모두 나의 죽음입니다. 그런에도 하나님, 애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회중 :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특 송

1. 류아 프란체스카

2. 평화산책

말씀 읽기

황보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출애굽기 38장 8절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46~55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말씀 펴기

김신애(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짜바웃”

공동집례 김주영(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나가오 유키(일본기독교단UCCJ/ NCKK 국제인턴)

분류분장위원 신난당(믿는페미), 최애지(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 초청의 말씀

집례자 1 : 살아남은 자들과 죽음 당한 이들의 고통을 아시며,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가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어둠을 끌어안고 죽으셨으나,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집례자 2 : 주님은 우리로 하나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간음죄로 끌려온 여인을 위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사회가 혐오하던 여인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회 중 :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 제정의 말씀

집례자 1 :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벗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 “받아 드십시오. 이는 그대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집례자 2 :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 “그대들 모두는 이를 받아 드십시오. 이는 새로운 언약의 내 피이니, 그대들과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것입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 안에 흘러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모든 이들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 성령임재의 기도

(모두 제대 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향해 오른손을 뻗습니다)

다 함 께 :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여기 차려 놓은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소서. 또한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 주의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 평화의 인사

집례자 1: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집례자 2: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빵을쪼갬 집례자1

※ 성찬 나눔과 우리의 기도

(성찬위원 성찬 후)

집례자 2: 이제 한 분 씩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판에 기도를 붙인 뒤, 빵을 들어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은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집례자: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 아멘

집례자: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 아멘

※ 드림, 살아남아 다시 붙인다

다함께: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몸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내게 하소서.

결단의 찬송

다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원제: 우리 함께 보리라)

고형원

우 리 오늘 눈 물로 -한 양의 씨앗을심-는 다
 꿈꿀수없어무너진 가슴에 저들 외로운꿈-다시돌아나도록-
 우 리 함께 땅 흘러 -소 망 의길만을-든 다
 내일 로가는길을찾지못했던 저들 노래하며달려갈그 길
 그날에- 우리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저들 잉여 나
 뜨거운- 가슴사 랑의눈으로- 이땅치유하며-해진할 때
 오래 행례하였던-이땅어디 서나 순결한꽃들피 어 나고-
 푸른 의의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보리라

다짐, 우리의 한걸음

인도자 : 여러분, 우리의 친구되신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슬퍼하는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밝히는 소망의 빛으로 분연하게 일어나 서로의 길을 밝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회 중 : 아멘.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존재를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며, 또한 서로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두움을 외면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공동 축도

다함께 : 죽임당한 우리,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품어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회의 약자들, 소외되고 배제당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기쁨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매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1년 전 이곳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 당한 자매와,
지금도 곳곳에서 온갖 이유로 차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살아남아 연대의 함성으로 이곳을 뒤덮은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김세종 김재흥 설윤정 송기훈 안상호 유혜신 안상호 조미연 조은하 믿는페미(무명)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성서한국

청파교회평화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우리의 기도

• 하나님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이뤄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 교회 내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차별 없는 세상, 혐오 없는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와 함께하길 • 이해가 열리게 하소서 • 실존하는 두려움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 이제는 여성해방 •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사랑이 여성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미혼모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 교회 내 여성혐오가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 더이상 여자이기에 불행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 여성 쿼어가 배척받지 않게 해주세요 • 혐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살아남은 우리가 꼭 바꿀 거예요. 평안을 빕니다 • 그 누구도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가 인식하길 바랍니다 • 하나님 살려주세요 • 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하나님 형상의 절반인 딸들이 더이상 착취당하고 죽임당하지 않는 나라가 오게 하소서 •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했던 기도를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당신께 돌아올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으로서, 쿼어로서 내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혐오에 맞서 싸우도록,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여성으로 계신 하나님. 여성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자매들과 형제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전세계 고난받는 자매들에게 위로와 평화, 안식을 주옵소서 • 참 사랑과 참 평화와 참 자유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 약자와 소수자가 모두 안전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힘을 실어주세요 하나님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페미니스트인 나와 믿는 사람인 내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 주님의 딸인 그 분이 부디 더이상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그곳에선 더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의 고통을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 모든 종류의 차별이 줄어드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사랑이 여성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미혼모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 차별치 않고 구분짓지 않고 약한 이들을 위해 눈물흘리고 분투하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 하나님 아래 사람이 평등한 세상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 살아남은 자로 투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위로자이신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흩어져있을 때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으며 힘들어 했던 시간 속에서도 홀로 지켜온 신앙을 서로 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여자라서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여자라서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 누구도 누구를 억압하지 않는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 여성이 더이상 외국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 믿는페미로 인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여성혐오, 기독교안에서의 성차별이 나아지고 회복되기를 • 여성들이 남성들의 행위와 행태(단체카톡 비방, 몰카, 리벤지 포르노,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는 한국사회를 바랍니다 •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것이 사치가 아닌 세상을 기다리고있어요 • 주님!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나야만 했던 그 사람과 이 땅 위의 자매들을 기억해주세요 • 비통한 죽음이 없는 세상, 여성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되기를 • 여전히 여자라는 이유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년 전과 지금이 같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싸워가겠습니다 • 예수님께서 이 땅의 혁명이셨듯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 예수님이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나 스스로 주체로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함께 아파하고 행동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여성인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에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주시옵소서 •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유대를 이끌어주세요 • 이 사회에 모든 혐오가 없어지길 기도합니다 • 전도서 4 장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Then I returned and saw all the oppression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the tears of those who were oppressed and they had no comforter; and on the side of their oppressors there was power; but they had no comforter • 여성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 여성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해서 저를 재단하거나 소외시키지않는 공동체를 주세요 •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희생자 1주기 추모예배 < >

살아남아, 다시 불인다

공동주최 | 믿는페미 잇는예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협찬 | **stomp!**
STOP THE VIOLENCE AGAINST WOMEN